

## I. 서문



그림1. 톨스토이 동상1)

# 툴라 주(Тульская область)

러시아 무기 제작의 도시

툴라 주는 러시아 연방 주체로 중앙연방관구에 해당한다. 주도는 툴라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85km 지점, 오카강(江)의 지류인 우파강(江) 연안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주요 공업 중심지이다. 툴라는 1146년에 최초로 문헌상에 언급되어 있으며, 16세기 타타르의 공격에 대비해 축조된 모스크바 대공국의 중요한 성채였다. 1552년 타타르에 대항해 승리한 바 있으며, 그 후 복원되어 현존하고 있다. 탄전도시인 툴라는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17세기 중엽 제철도시로서, 또 러시아연방의 병기 생산지로서 알려졌다. 1712년 표트르 1세가 세운 러시아 최초의 무기 생산 공장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 4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무기 제작과 금속 가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이 툴라가 '무기 제작의 도시(Город оружейников)'라는 별칭 지명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철강, 농업기계, 광산설비, 무기, 식품가공 등이 주산업이다. 주변지역에서 갈탄이 다량 채굴되고 있으며, 전통 공예품인 사모바르는 이곳의 특산품이다. 기계학교, 광업학교, 교육대학 및 채탄연구소가

있다. 무기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병기박물관과 16세기에 건축된 크렘린이 보존되어 있다. 남서쪽 14km 지점에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Лев Толстой)의 생가가 있는 야스나야 폴랴나(Ясная Поляна) 마을이 있다.

## <목차>

- I. 서문
- II. 종합 개관
  -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 2. 자연환경
    - 2.1. 지리
    - 2.2. 기후
    - 2.3. 환경오염문제
  - 3. 주 상징
    - 3.1. 주 기
    - 3.2. 주 문장
- III. 상세개관
  - 1. 역사
    - 1.1. 형성기
    - 1.2. 15~16세기
    - 1.3. 17~20세기
    - 1.4. 2차 세계대전과 전후
  - 2. 정치
    - 2.1. 행정부
    - 2.2. 주 의회
    - 2.3. 대통령 선거
  - 3. 경제
    - 3.1. 경제개황
    - 3.2. 지역총생산(GRP)
    - 3.3. 주요 산업
      - 3.3.1. 화학 공업
      - 3.3.2. 금속 공업
      - 3.3.3. 기계 제작
      - 3.3.4. 방위 산업
      - 3.3.5. 연료 및 에너지 복합단지
  - 4. 사회·문화

- 4.1 인구 및 민족구성
- 4.2 행정구역
- 4.3. 교육
- 4.4. 문화 및 관광
- 5. 한국과의 관계
- 5.1. 한국-톨라 주의 문화교류
- 6. 참고문헌

## II. 종합개관

### 1. 개관

#### 1.1.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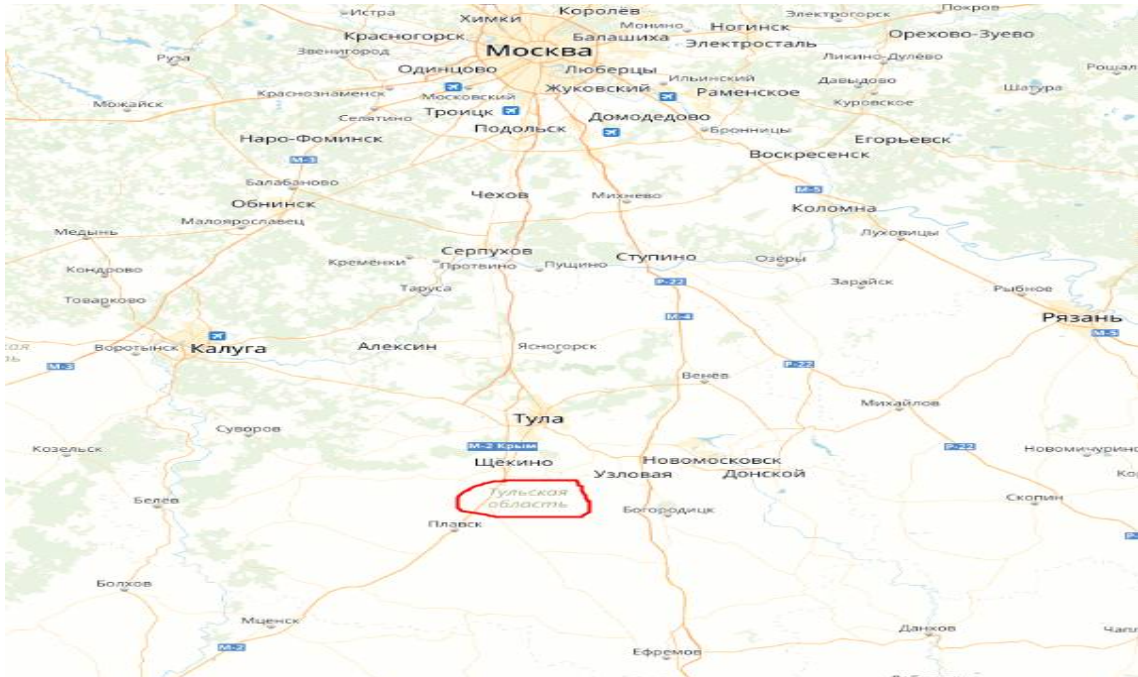


그림2. 톨라 주 위치2)

톨라 주(Тульская область)는 러시아의 중앙연방관구, 중앙경제지구에 속하며 1937년 9월 26일에 설립되었다. 중심 도시는 톨라(Тула)이다. 톨라 주의 국경은 북쪽과 북동쪽으로 모스크바 주(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동쪽으로 라잔 주(Рязанская область), 남쪽과 남동쪽으로 리페츠크 주(Липецкая область), 남서쪽으로 아를 주(Орловская область), 서쪽과 북서쪽으로 칼루가 주(Калужская область)와 맞닿아 있다. 러시아 중부 구릉지대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25,679km<sup>2</sup>이다. 이는 러시아 연방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한다. 동과 서의 길이는 190km, 남과 북의 길이는 200km이다. 인구는 2022년 기준 1,432,570명이다. 조밀한 영토구성과 경제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는 톨라 주의 지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교통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토의 북에서 남으로 두 개의 주요한 철도가 지나가고 이는 모스크바 주와 우크라이나 북 코카서스를 연결한다. 또한 영토의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칼루가 주와 툴라 주를 연결하는 철도가 깔려있다. 툴라 주의 중앙지역을 가로질러 남쪽지역에는 모스크바의 고속도로가 심페로폴(Симферополь)과 보로네시(Воронеж)로 연결되어 있다. 툴라 주는 지리적으로 산업지대에 근접하고,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어 이동과 수송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sup>3)</sup>

## 1.2. 일반개황

[표 1] 툴라 주 일반개황<sup>4)</sup>

공식명칭	툴라 주(Тульская область)
주 도	툴라
연방관구	중앙연방관구(Централь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경제지구	중앙경제지구(Центра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
성립일	1937년 9월 26일
면적	25,679km <sup>2</sup> (러시아 연방 중 70위)
인구	1,432,570명(2022년 기준) - 러시아 연방 중 33위
민족구성	러시아인(95.3%), 우크라이나인(1.0%), 아르메니아인(0.6%), 타타르인(0.5%), 벨라루스인(0.4%), 아제르바이잔인(0.4%), 집시(0.3%), 독일인(0.2%), 기타(1.5%)
주지사	듀민 알렉세이 겐나디예비치(Дюмин Алексей Геннадьевич)
주의회	총 의석 수(36석) <sup>5)</sup>
지역총생산(GRP)	7,091억 9,700백만(RUB) - 2020년 기준
1인당 GRP	48만 6,544(RUB) - 2020년 기준
주요산업	제조업(38.4%), 부동산(10.4%), 자동차 관련 산업(9%), 농수산 및 임업(7.4%), 건설업(6.3%)
주요 자원	석탄, 목재, 석회석 기타
주요 도시	노보모스크프스크(13.3만 명), 알렉신(6.9만 명), 예프레모프(7.1만 명)
행정구성	7개 시, 19개 군, 23개 읍

## 2. 자연환경

### 2.1. 지리

# ФИЗИЧЕСКАЯ КАРТА

Масштаб 1:1 200 000



그림3. 툴라 주 지형도6)

툴라 주는 동부유럽 평야지대와 중앙 러시아 구릉지대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높이가 293m에 이른다. 주요 강은 돈강과 오카강으로, 약 80%에 이르는 이 지역의 강이 오카강으로, 20%정도가 돈강의 분지로 흘러간다. 오카강은 툴라주의 서쪽과 북서쪽 외곽을 따라 흐르며, 주요 지류는 주샤(Зуша), 이스타(Иста), 우파(Упа), 체레페티(Черепеть), 오세트르(Осетр)이다. 강이나 계곡 등 수로의 교차점이자 육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양호한 지정학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매우 확고한 국내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의 표면은 침식평야이고 염분회색토와 흑토가 주요 토양이다. 석탄, 갈탄, 철광석, 황화철, 석고, 암염, 바위 인산염, 석회석, 인회토 등이 발견되고, 건축 자재 생산을 위한 원료가 되는 160개 이상의 점토, 모래, 쇄석(碎石),

석고, 자갈 매장지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석탄과 스트론튬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이 지역은 소위 금벌림(禁伐林)으로 불리는 활엽수림대(참나무, 자작나무, 아스펜 등)가 툴라 전역을 걸쳐있어 영토의 13%에 이르는 면적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경지역에 분포한 참피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등은 과거 러시아 국가의 남쪽 국경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하여 특별 보호대상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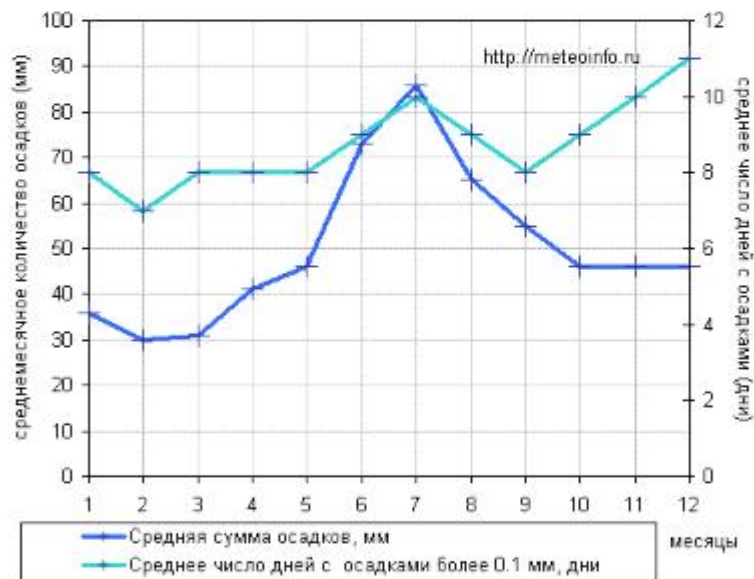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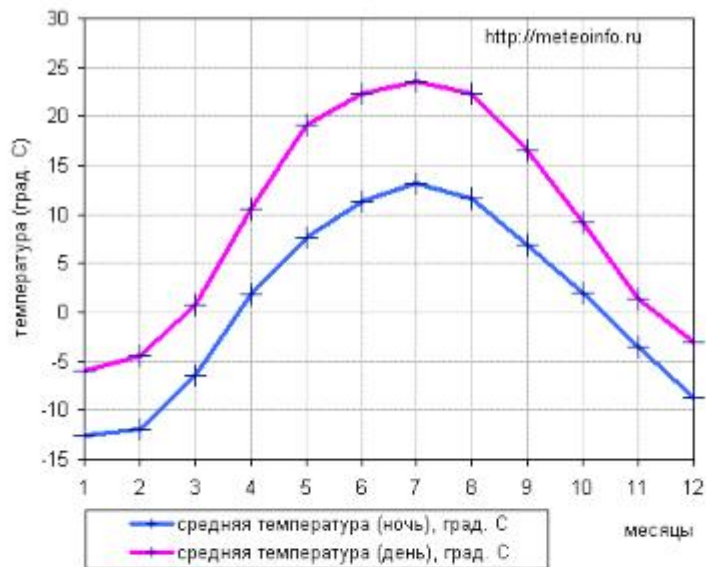
## 2.2. 기후



그림4. 툴라 주 기후도

툴라 주는 온난기후대에 속하며 대륙성 온난기후이다. 이는 적당히 추운 겨울과 적당히 더운 여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툴라 주의 기후에는 대기이동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으로부터의 대기이동은 특히 겨울과 가을에 집중되고, 풍향은 그리 자주 바뀌지 않는다. 온기에는 주로 서풍과 북서풍, 북풍과 남동풍이 불고, 한기에는 남서풍과 남풍이 주로 분다.

**Среднемесячные клима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для  
г. Тулы**



Месяц	Средняя температура, (0С)		Средняя сумма осадков	Среднее число дней с осадками более 0.1 мм
	ночь	день		
1	-12.6	-6.0	36	8
2	-12.0	-4.5	30	7
3	-6.4	0.7	31	8
4	1.9	10.6	41	8
5	7.6	19.2	46	8
6	11.3	22.3	73	9
7	13.2	23.6	86	10
8	11.6	22.4	65	9
9	6.9	16.5	55	8
10	2.0	8.2	46	9
11	-3.5	1.4	46	10
12	-8.8	-3.1	46	11

Период осреднения: 1961-1990 гг.

그림5. 툴라 주 월평균 기후 데이터8)

연중 영상기온은 220~225일 관측된다. 연간 강우량은 북서부 지역에 575mm, 남동지역 470m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무상기간(서리가 없는 기간)에 강우량의 70%, 특히 7월에 많은 강우량이 집중된다.

### 2.3. 환경오염문제

체르노빌 원전 사태로 인해 툴라 주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1,800m<sup>2</sup>의 토양이 오염되어 농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산림지역의 27%도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1994년 러시아연방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툴라는 러시아연방 내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12개 지역 중 하나였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오염 물질의 농도 증가는 툴라 주의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오염물의 90%가 산업 기업이 집중된 대도시 지역에서 배출된다. 2010년 툴라 주의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부유물질의 허용농도가 6.2%,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허용농도는 0.9%,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허용농도는 4.9% 초과되었다고 한다. 지난 3년 간 추진된 SPZ산업(Specialized Processing Zone, 특수촉진공단)은 280명 이상의 인구를 이주시켰고, 2010년 표면수역으로 많은 양의 폐수가 유입되었다. 툴라 주의 지하수가 주요 식수 공급원인데, 2010년에는 지하수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3. 주 상징

### 3.1. 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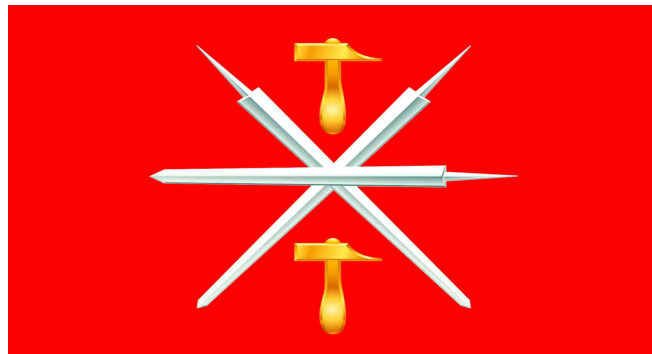


그림6. 툴라 주 기<sup>9)</sup>

2005년 12월 21일 공식 채택되었다. 툴라 주의 주기는 붉은색 바탕의 중앙에 툴라 지역의 상징인 은빛 블레이드와 황금망치가 배치되어 있다. 깃발은 직사각형의 형태이며 세로, 가로 비율이 2:3이다.

### 3.2. 주 문장



그림7. 툴라 주 문장<sup>10)</sup>

툴라의 주 문장은 2000년 10월 12일 툴라 주 두마에 의해 공식 채택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툴라 주 두마 법령 '제2조. 문장의 설립 및 사용 목적'에 따르면 주 문장은 툴라 주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역사적 자부심, 지역 주민의 통합, 지역 내 인종의 화합, 시민 평화와 이해의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툴라 주의 문장은 영웅의 칭호를 받은 도시임을 나타내는 레닌의 리본에 둘러싸여 있으며, 붉은 방패 위에 은색 블레이드가 비스듬한 십자가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블레이드의 상단과 하단에는 황금 망치가 있다. 방패에 사용된 짙은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용기, 군사력을 상징하며 황금망치는 높은 기술력, 혹은 전통적으로 무기를 생산해 온 툴라 주의 특징을 상징한다. 은빛 블레이드는 공격 목적이 아닌 방어 목적의 검을 의미하고, 은색은 순수함, 고결함을 상징한다.

### III. 상세개관

#### 1. 역사

##### 1.1. 형성기

툴라지역에는 초기 철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 무덤과 도시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에는 바티치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농사를 지었으며 교역이나 수공업에도 종사했다. 이러한 사실은 토지대장의 기록에 의해 증명된다. 여기에는 고대 마을유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 마을은 툴리차(Тулица) 하천이 우파(Упа) 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고 적혀있다. 아마도 이들 주민들은 타타르족과 다른 유목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찾을 수 없다. 툴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파티예프 연대기(Ипатьевская летопись)에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체르니고프 공국(Черниговское княжество) 의 공후인 스바토슬라프 올고비치(Святослав Ольгович)의 원정기록에서 보여진다. 그의 원정길은 라잔(Рязан) 지역에 걸쳐 있었고, 1146년에 툴라의 몇몇 마을을 지나갔으며, 당시 이 마을들은 라잔 공국에 속해 있었다. 1147년의 이파티예프 연대기(Ипатьевская летопись)에 가장 먼저 언급된 툴라의 마을은 벨료프(Белев)로, 바실리 로마노비치(Василий Романович) 공후의 명령으로 험한 요새를 건축하여 이 지역을 방어하였다. 14세기 전반 툴라는 타타르 한국에 소속되어 200년간 모스크바의 남쪽 국경지역에 위치한 중심도시가 되었다.

## 1.2. 15~16세기

이 시기 툴라 지역과 근방에서는 몇 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1437년의 빌료프 전투(Белёвская битва), 1472년 알렉신의 전투(героическая оборона Алексина), 1555년의 수드비첸스크 전투(Судбищенское сражение) 등 16세기 전반만 해도 크림-타타르로부터 대략 43차례의 침략을 받았으나, 성곽을 지키는 병사들에 의해 모스크바 국경이 침략을 당하지는 않았다. 1521~1566년 동안 방어막을 확장한 것이 국경수호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1507년에서 1521년 사이에 건축된 툴라의 크렘린(석조건축물)이 지역 방어의 중심으로서 모스크바 남쪽 외곽의 요새 역할을 했다.

## 1.3. 17~20세기

모스크바 국가의 국경이 아조프 해까지 확장된 17세기 중반에 들어서 툴라 지역은 국경수비 기능을 상실하고 점차 '제철 및 무기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툴라 변방지역에서 풍부한 철광석과 갈탄이 발견되었고, 1630년 독일과 네덜란드 자본으로 철강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때부터 툴라의 무기에 관한 역사가 변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유목민의 침입에 대항하여 러시아 국경을 지키려는 툴라 주민들에게 무기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무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황제는 툴라에서 직접 무기를 제조하도록 명령했다. 이제 툴라는 러시아의 금속가공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고, 1712년 표트르 1세의 명령에 의해 툴라에 러시아 최초로 국영 무기 공장이 세워졌다. 18세기 툴라 지역은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철 생산 및 주철가공의 중심지가 되었다. 툴라의 도시들은 1812년 무기생산을 통해 조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툴라의 총기 제작사들은 60만개의 소총을 생산하여 러시아 군대에 공급했고, 1853~55년의 크림전쟁 동안 러시아 민병대에 무기를 공급했다. 도시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1868년 모스크바-쿠르스크를 잇는 철도가 툴라를 통과해 지어졌다. 20세기 초 무기 생산과 관련하여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이 영향을 미치며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였고, 1937년 9월 26일 현재의 경계선으로 마침내 툴라 주가 수립되었다.

## 1.4. 2차 세계대전과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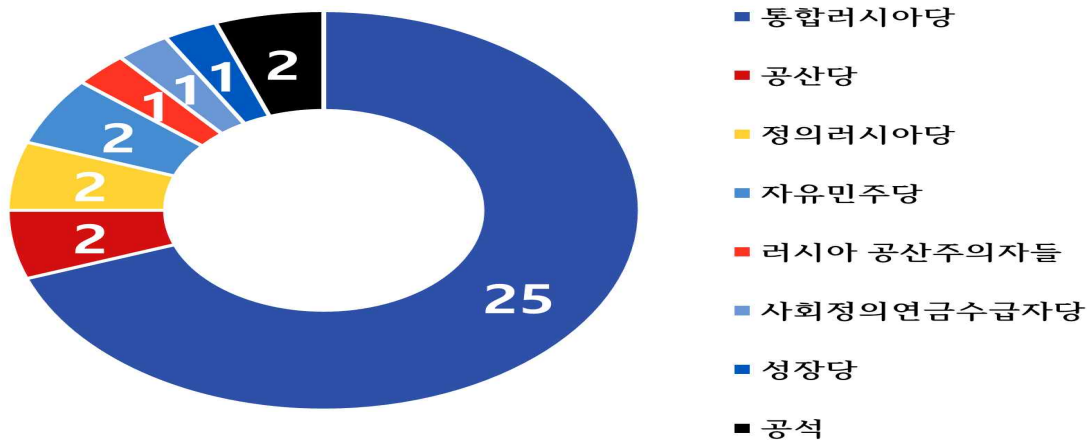
[표 2] 툴라 주 역대 주지사<sup>12)</sup>

№	이름	사진	임기 시작	임기 종료
1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세브류긴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Севрюгин)		1991.10.20	1997.03.31
2	바실리 알렉산드로비 치 스타로두브체 프 (Василий Александров ич Стародубцев)		1997.03.31	2005.04.29
3	바체슬라프 드미트리예비 치 두드카 (Вячеслав Дмитриевич Дудка)		2005.04.29	2011.07.29
4	블라디미르 셀르게예비치 그루즈데프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Груздев)		2011.08.18	2016.02.02
5	알렉세이 겐나디예비치 듀민 (Алексей Геннадьевич Дюмин)		2016.02.02	~

## 2.2. 주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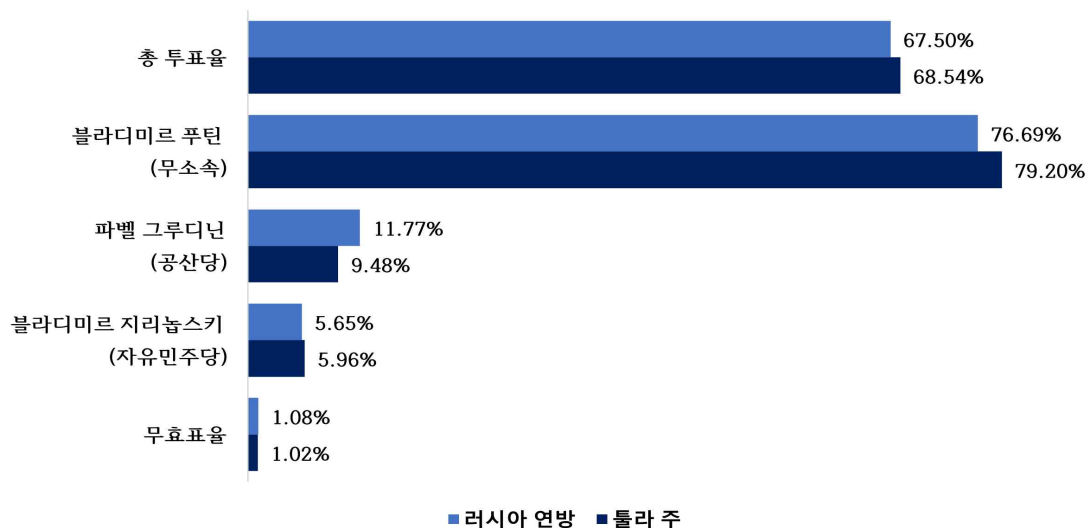
툴라 주 두마(Туль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는 단원제의 형태이며 툴라 주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현재 두마는 제7대 두마로서 총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주 의회 의장은 니콜라이 유리에비치 보로비요프(Николай Юрьевич Воробьёв)이다.

그림9. 툴라 주 두마 의석 현황<sup>13)</sup>



## 2.3. 대통령 선거

[그림 10.] 2018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득표율<sup>14)</sup>



[그림 10]은 2018년 대선 당시 툴라 주와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후보별 득표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툴라 주에서 나타난 푸틴 지지율은 79.20%로 러시아 연방의 76.69%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그루디닌이 9.48%, 지리놉스키가 5.96%의 지지율을 얻었다.

### 3. 경제

#### 3.1. 경제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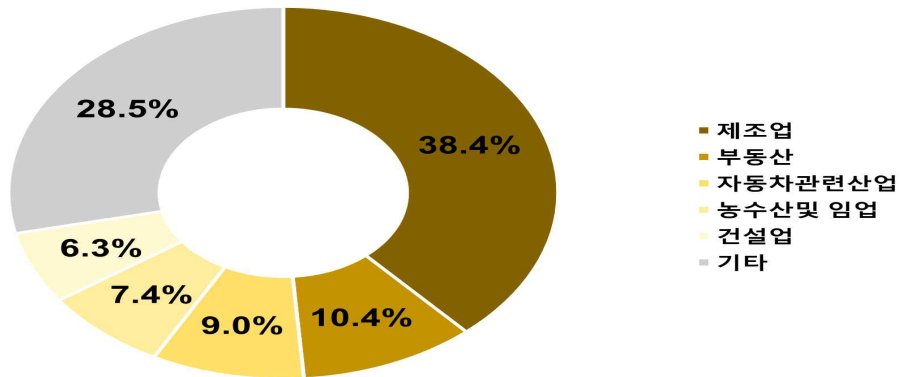
[표 3] 툴라 주 주요 경제지표

지표	주요내용
1. 명목GRDP (2020년, 백만 루블)	703,197
2. 1인당 명목GDP (2020년 기준, 루블)	486,544.2
3. 월 평균임금 (2020년 기준, 천 루블)	40.8
4. 대외교역 (2020년 기준, 백만 달러)	4,180
5. 외국인 투자액 (2020년 기준, 백만 루블)	589

툴라 주는 중앙경제지구(Центра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 GRP를 살펴보면 중앙연방관구 내 18개의 주 및 연방시 중에 툴라 주는 7,091억 9,700백만 루블로 5위에 랭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툴라 주는 기계공학, 화학 및 금속공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이들 산업이 전체 산업 생산 비율의 64%이상을 차지한다. 이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특징은 분야의 다각화와 방위산업단지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툴라 주의 주요 산업부문은 기계제작(방위산업 포함), 화학 산업, 금속공업, 건축자재산업, 석탄광산, 에너지산업, 전자공학, 식품산업 등이고 최근 건설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였다. 건설업의 발달로 인해 건축자재 생산 기업이 활성화되었고, 콘크리트, 석고, 벽돌 생산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지역은 화물과 여객을 위해 개발된 러시아 연방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망이 매우 잘 발달해 있다. 이 교통 네트워크는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의 국경까지 연결하는 M2 고속도로, 모스크바와 크라스노다르(Краснодар)를 잇는 M-4, 칼루가(Калуга)에서 라잔(Рязан)까지 잇는 P-132, 칼루가에서 오를(Орёл)까지 연결되는 P-92 고속도로를 포함한다. 또한 이 지역의 주요 철도간선들은 툴라를 러시아 연방의 다른 지역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해외지역과 연결시킨다. 툴라 주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은 국가 영역에서 봤을 때 평균에 해당한다.

#### 3.3. 주요 산업

그림 11. 2020년 툴라 주 산업 현황<sup>15)</sup>



툴라 주의 주요 산업 기반은 중공업이다. 이바노보 주의 주요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38.4%), 부동산(10.4%), 자동차 관련 산업(9%), 농수산 및 임업(7.4%), 건설업(6.3%) 등의 순이다.

### 3.3.1. 화학 공업

화학 공업은 툴라 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화학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툴라 주의 화학 산업 단지에는 15개의 대형기업과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2만4천명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화학 산업의 발전은 툴라 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보모스콥스키 화학공장(«Новомосковский химкомбинат»)과 에프레몐스키 공장(«Ефремовский завод»)은 러시아 국내에서 최초로 합성고무를 제조하는 회사이자 국내 화학의 첫 출발지라 할 수 있다. 툴라 주의 화학 산업과 공장 건설은 러시아 연방 전체 화학 산업의 근원이었던 셈이다. 현재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아조트(OAO «Азот»), 셰키노아조트(OAO «Щекиноазот»), 프록테르앤드갬블-노보모스콥스키(OOO «Проктер энд Гэмбл-Новомосковск»), 힘볼로크노(OAO «Химволокно») 등이 있다.

그림 12. 프록테르 앤드 갬블-노보모스콥스키<sup>16)</sup>



이들 기업에서 생산된 화학제품들은 질소비료, 합성 암모니아, 메탄올, 합성 세제의 생산에 사용된다. 화학 산업 기업은 대외 무역 분야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지역의 화학 산업은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 툴라 주에서 제조되는 화학제품은 세계 다수 국가에 수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독일, 헝가리, 미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터키 등이며 메탄올, 질소비료, 암모니아, 합성 고무 등을 수출한다.

### 3.3.2. 금속 공업

17세기 말 툴라 주에 러시아 최초의 제철소가 건설됨에 따라 이 지역은 금속공업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지역경제에서 금속공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섯 개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있으며, 약 1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주요 상용 제품은 주철, 철강, 망간, 바나듐, 크롬, 분말 철 금속, 합금, 압연 금속 제품, 비철금속 등이고 대외 무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속공업 단지에 속한 기업들은 철강제조, 비철금속의 생산, 내화물 생산 등의 하위분야로 세분화된다. 툴라체르메트(OAO «Тулачермет»), 코소고르스크 철강 공장(OAO «Косогорски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завод»), 레바킨스크 급속압연 공장(OAO «Ревякинский металлоролатный завод») 이 세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며, 이들의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넘는다.

그림 13. 툴라체르메트(OAO «Тулачермет»)17)



툴라체르메트(OAO «Тулачермет»)는 금속공업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도 주요 철강 제조업체이며,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규모를 자랑한다. 연간 3백만 톤의 제품을 국내 및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코소고르스크 철강 공장(OAO «Косогорски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завод»)은 1897년에 설립되어 툴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이다. 이 기업은 망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연간 생산능력이 72만 톤에 달하는 국가의 선도적인 기업이다. 툴라의 금속공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식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술과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진화를 꾀하고 있다.

### 3.3.3. 기계 제작

툴라 주의 산업 중 기계제작 부문은 기계 및 장비의 생산, 전기 및 광학 기기의 제조, 운송 장비 제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에 약 1,000여개의 기업과 단체가 포함된다.



그림 14. 타시프로마르마투라(ОАО «Тяжпромартура»)¹⁸)

타시프로마르마투라(ОАО «Тяжпромартура»)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석유, 가스, 화학 및 전력사업에 사용되는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CIS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에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트란스마시(ОАО «Трансмаш») 역시 러시아 연방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 하나로, 러시아와 CIS국가들에 차량 및 열차 브레이크를 생산한다. 툴라엘렉트로프리보드(ЗАО «Тулаэлектродрифт»)는 전력액추에이터의 밸브 생산 분야에서 선도적 기업이다. 200개 이상 종류의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방지를 위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러시아 및 CIS지역으로 납품된다.

### 3.3.4. 방위산업

툴라 주에는 방위산업이 고도로 발달해 있으며, 다년간의 노하우와 디자인 등 아이디어가 축적되어 왔다. 툴라 지역에는 러시아 연방의 방위산업 단지에 포함되는 28개의 기업과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그림 15. 콘스트룩토르스코예뷰로프리보로스트로예니야  
(ГУП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бюро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¹⁹)



그 중 콘스트рук토르스코예부로프리보로스트로예니야(ГУП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бюро 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스플라프(ФГУП «ГНПП «Сплав»), 툴라마시자보드(ОАО «Тула машзавод») 등이 선도적인 기업체이다.

그림 16. 2014년 1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콘스트록토르스코예부로프리보로스트로예니야  
(ГУП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бюро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공장 시찰<sup>20)</sup>



방위산업이 툴라 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의 발전과 성과는 지역경제에 크나큰 기여를 한다. 툴라 주의 방위산업은 정밀 유도 무기, 로켓 발사기, 소형 무기, 대공 미사일과 시스템, 특수 화학제품, 스피커, 무선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을 생산한다.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여 오랜 기술력이 축적된 툴라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며,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툴라 주는 매년 과학 기술 분야에 할당된 예산의 45%를 방위산업기술 연구에 지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는 방위산업이 툴라 지역의 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다.

### 3.3.5. 연료 및 에너지 복합단지

툴라 주는 중앙연방관구 내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가스 소비량의 경우 러시아 전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인 동시에 전력과 가스, 오일의 생산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툴라의 연료 및 에너지 복합체(Топлив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는 크게 전력,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공급, 석탄 산업을 포함하는데, 이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회사들은 툴라 지역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보로네시, 탐보프, 브란스크, 스몰렌스크, 리페츠크, 쿠르스크, 라잔 등의 발전회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에너지 회사의 주도로 툴라 인근 도시로의 송전망이 건설되어 있다. 생산된 전력은 툴스카야 스비토바야 콤파니아(ОАО «Тульская сбытовая компания»)라는 전력 소매 회사를 통해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툴라 주에는 '스타브로폴(Ставрополь)-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세르푸호프(Серпухов)', '얌부르그(Ямбург)-툴라', '툴라-쇼스트카(Шостка)-키예프(Киев)'를 연결하는 주요 가스파이프 라인을 비롯해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교차하고 있다. 현재는 가스프롬 툴라 지사(«Газпром межрегионгаз Тула»)가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17. 가스프롬 툴라 지사(«Газпром межрегионгаз Тула»)21)



현재 툴라 주 내에서는 76곳의 가스분배지, 6곳의 액화가스 충전소, 300대 이상의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 있다. 또한 툴라 주는 시아의 가장 오래된 석탄 생산지역 중

하나인 포드모스코브 석탄분지(Подмосковный угольный бассейн)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석탄 매장량이 매우풍부하다. 이는 수백 년간 중앙연방관구의 에너지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다.

#### 4. 사회·문화

##### 4.1. 인구 및 민족구성

[표 4] 툴라 주 인구변동 추이<sup>22)</sup>

(단위: 천명)

년도	총인구	구분(인구수)		구분(%)	
		도시거주	농촌거주	도시거주	농촌거주
2016년	1,506.4	1,125.6	380.8	74.7	25.3
2017년	1,499.4	1,120.9	378.5	74.8	25.2
2018년	1,491.8	1,115.7	376.1	74.7	25.3
2019년	1,478.8	1,106.5	372.3	74.8	25.2
2020년	1,466.1	1,096.9	369.1	74.8	25.2
2021년	1,449.1	1,082.8	366.2	74.7	25.3
2022년	1,432.5	1,068.6	363.8	74.6	25.4

2022년 기준 러시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툴라 주의 인구는 1,432,570명,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55.79명, 도시 거주 인구는 74.6%(1,068,671명)에 달한다. 툴라 주의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당면한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툴라 주 민족구성<sup>23)</sup>

조사 연도	1989	2002	2010
러시아인	1,774,939 (95.4%)	1,595,564 (95.5%)	1,462,184 (95.3%)
우크라이나인	36,264 (1.9%)	22,260 (1.3%)	15,027 (1.0%)
아르메니아인	1,394 (0.0%)	6,507 (0.4%)	9,145 (0.6%)
타타르인	9,551 (0.5%)	8,968 (0.5%)	7,878 (0.5%)
벨라루스인	9,928 (0.5%)	5,974 (0.4%)	4,544 (0.4%)
아제르바이잔인	2,006 (0.1%)	4,491 (0.3%)	4,043 (0.4%)
집시	2,296 (0.1%)	3,843 (0.2%)	3,645 (0.3%)
독일인	7,049 (0.4%)	4,689 (0.3%)	2,718 (0.2%)
기타	17,984 (1.0%)	19,150 (1.1%)	23,878 (1.5%)

툴라 주의 민족구성은 2010년 기준 러시아인이 95.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1.0%, 아르메니아인 0.6% 순이다.

##### 4.2. 행정구역



그림 18. 툴라 주 행정 구역 지도<sup>24)</sup>

툴라 주는 총 10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7개의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19개의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23개의 읍(городское поселение), 54개의 시골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4.3. 교육

현재 툴라 주는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급 직업 교육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툴라 주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방차원의 사회/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교육자와 연구자들의 높은 프로의식, 학생들의 높은 창의력 덕분에 고등교육기관들이 본연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높은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툴라 주에는 40여개 이상의 독립된 과학 기술 연구소와 7개의 고등교육기관, 다양한 기업 산하의 대규모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소 및 교육기관들은 툴라 주의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툴라 주립대학(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과 툴라 주립 사범대학(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Л. Н. Толстого)이 있다. 툴라 주립대학은 러시아의 중앙연방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립대학으로 1930년 4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의대, 정밀 과학학부, 산업 기술학부 등을 포함한 8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680명의 석·박사 과정생이 재학 중이다.

그림 19. 툴라 주립대학(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로고<sup>25)</sup>



툴라 주립 사범대학 역시 선도적인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9개의 학부(수학, 물리학부, 외국어 학부, 러시아어 언어학부, 역사학부, 심리학부, 경영학부, 인문학부, 체육학부, 국제학부)와 39개의 학과, 4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6,500명의 학부생과 200명 정도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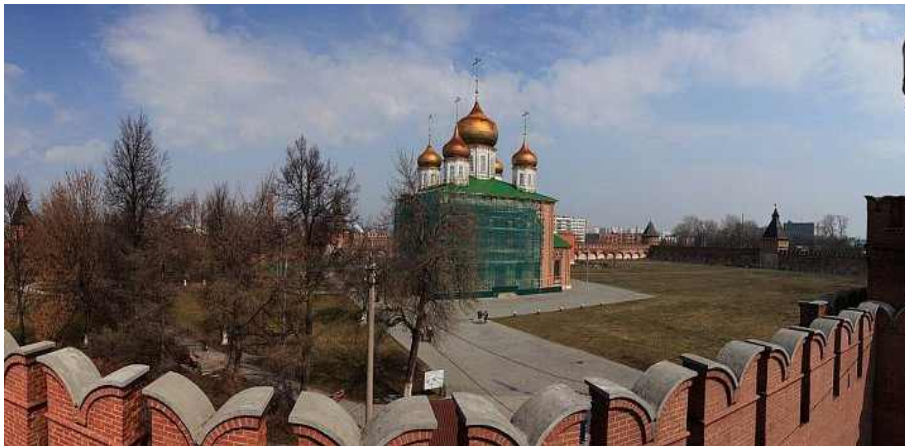
그림 20. 툴라 주립 사범대학(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Л. Н. Толстого) 로고<sup>26)</sup>



#### 4.4. 문화 및 관광

툴라는 고대 슬라브인의 땅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수세기 동안의 역사는 옛 유적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툴라 주는 고고학적 유물, 기념물, 건축물, 자연 환경 기념물이 풍부한 곳이다. 툴라의 중심에는 그 완전함과 조화로운 형태로 건축된 방어용 건축 기념물인 크렘린이 서있다. 이 건물은 16세기 초에 바실리 3세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건물이다. 크렘린 성벽의 건축물은 크림 타타르의 러시아 침공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었다. 툴라의 크렘린을 건축학 장인들은 고대 러시아 건축의 전통과 서구 유럽의 건축 예술의 특징을 솜씨 있게 결합시켰다. 툴라 크렘린의 건축에는 러시아의 석공들 외에도 15세기에 모스크바 크렘린을 완성한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그림 21. 툴라의 크렘린(Тульский кремль)<sup>27)</sup>



툴라주의 공지는 박물관인데, 이곳에는 민족의 문화적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1380년 툴라 땅에 역사적인 쿨리코보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는 타타르 한국으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념해 1996년 10월에 전쟁·역사 및 자연 박물관 보호구역인 쿨리코보 들판(Куликово поле)이 조성되었다.

그림 22. 쿨리코보 박물관(Музейный комплекс «Куликово поле»)<sup>28)</sup>



레프 톨스토이(Л. Н. Толстой)는 톨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가이다. 톨라의 야스나야 폴랴나(Ясная Поляна)에서 톨스토이가 태어났고 바로 이곳에 묻혔다. 이곳에서 그는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작품들을 집필했다. 현재 야스나야 폴랴나에는 톨스토이의 생애를 담은 박물관과 세계 문화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 23. 톨스토이 생가(Тульский кремль)<sup>29)</sup>



## 5. 한국과의 관계

### 5.1. 한국-톨라 주의 문화교류

다음은 2003년 9월 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러시아는 지금 '톨스토이 사랑'에 빠졌다'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sup>30)</sup>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1828~1910)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사랑은 해를 거듭해도 식을 줄 모른다. 9일 그의 탄생 175주년을 계기로 이 같은 사랑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문화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를 '톨스토이 기간'으로 선포해 러시아 전역에서 기념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4일부터 '톨스토이의 땅과 하늘'이란 전시회를 개최해 온 톨스토이문학박물관측은 "한국과 프랑스 등에서의 해외 전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톨라국립사범대에서는 전 세계 톨스토이 연구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대 운동 속에서의 톨스토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톨스토이가 생전에 절친했던 시인 표도르 튜체프와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서한집과 '철학일기' 등 관련 신간이 나왔고, 100권짜리 톨스토이전집 발간 작업도 시작됐다. 백미(白眉)는 9일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220km 떨어진 톨라주(州) 야스나야 폴랴나(빛나는 들) 마을 톨스토이 생가(生家)박물관에서 열린 '탄생 175주년 기념식'. 야스나야폴랴나는 톨스토이가 나고 자라 생애 대부분을 보내고 묻힌 곳이다.

이날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에는 미하일 슈비트코이 문화부 장관과 4대손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생가박물관장 등 후손, 문화예술계 인사와 내외신 기자 등

수백명이 모였다. 한국외국어대 김현택(金炫澤) 교수를 비롯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러시아문학 연구자들과 정태익(鄭泰翼) 주러 한국대사 등 외교사절도 참석했다. 러시아 철도부는 기념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이날 하루 모스크바에서 툴라까지 특별열차를 운행했다.

슈비트코이 장관은 기념사에서 “그의 작품을 주의 깊게 읽으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며 톨스토이 문학의 영원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러시아 문학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성톨스토이문학상의 첫 시상식도 거행됐다. 2만달러(약 2300만원)의 상금은 소설집 ‘아프가니스탄의 겨울’을 낸 올레그 예르마코프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단은 “예르마코프의 견고한 문체는 톨스토이가 대표작에서 보여준 스타일을 연상시킨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계 작가로 심사위원장인 아나톨리 김은 “구소련 시절의 레닌문학상은 작품성보다는 이념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기존의 부커(Booker)상이나 슬제니친상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미흡했다”며 “해마다 가장 큰 문학적 성과를 거둔 작가를 골라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금과 운영 경비 등 7만달러를 후원한 삼성전자 장창덕(張昶德·52)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장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삼성만의 고유한 공헌방법으로 문학상 제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에서 여전히 깊은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은 문학성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그의 예언자적 통찰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간 ‘이즈베스티아’의 문학담당 기자인 안나 페디나는 “대작 ‘전쟁과 평화’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생명력은 소련 붕괴와 체제변혁 등 격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에게도 위안이 되며 ‘카프카스의 포로’에서 그려진 상황은 현재의 체첸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0년 11월 22일자 연합뉴스에 게재된 ‘<인터뷰> 톨스토이 고손자 블라디미르’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sup>31)</sup>



그림 24. 모스크바 남부 툴라주의 ‘야스나야 폴라나’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레프

톨스토이의 고손자 블라디미르 톨스토이와 연합뉴스의 인터뷰<sup>32)</sup>

“세계적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1828-1910)의 고손자로 톨스토이가 평생을 살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야스나야 폴라나' 영지 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블라디미르 톨스토이(48)는 21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톨스토이가 서거한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문학 작품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사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관장은 야스나야 폴라나 박물관 관장실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에서 연령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을 깊이있게 파헤쳤다"며 "이것이 그의 작품이 시대를 넘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야스나야 폴라나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수가 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거의 10배나 늘었다"며 "한국 기업 삼성과 주러 한국 대사관 등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 방문객 수도 크게 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관장과의 일문일답.

--서거 100년이 지난 지금도 톨스토이를 찾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톨스토이의 문학과 철학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삶과 죽음, 종교, 가족생활 등의 문제를 다뤘다.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고들어 모두가 부닥치고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을 들춰냈다. 그의 문학이 21세기에도 관심을 끄는 이유다. 톨스토이는 또 긍정적 천성을 가진 도덕적으로 건강한 작가다. 사람들은 이런 자질에 끌리게 마련이다. 같은 시대 작가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악과 어두운 면에 더 주목했다. 물론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더 끌리게 마련이다. 톨스토이 작품에서는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이나 극단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이 없다. 모든 주인공은 우리와 함께 현실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누구나 그의 작품에서 자신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 오래가는 것이다.

--100년 전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톨스토이가 주창했던 '무저항, 무소유'의 철학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보나.

▲톨스토이의 철학은 절대 늙지 않는다. 그가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절박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급빌라나 호화 요트, 개인 전용기 등을 갖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지 모른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인간의 내적 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이를 위한 육체노동의 의미도 강조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육체노동에서 점차 멀어지고 편해지면서 오히려 기술의 노예가 돼 가고 있다. 숨 쉬는 공기가 더러워지고, 먹는 음식도 나빠졌으며, 건강은 악화됐다. 문명의 이기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어느 부문에 더 중점을 둘지는 선택의 문제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인본주의와 양심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경

쟁이 양심에 우선하고 있다. 목적 성취를 위해 남들에 앞서려고 애쓰면서 양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않는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위험성을 봤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언젠가는 인류가 톨스토이가 주창하고 실천하려 했던 '무저항과 무소유'의 철학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 사상이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

▲톨스토이는 어떤 권력과도 화합하지 못했다. 제정 러시아 권력은 물론 볼셰비키 정권과도 마찬가지로였다. 볼셰비키주의자들은 톨스토이 사상의 일부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이용했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렸다. 그들은 물질적 부와 러시아 정교회를 부인한 톨스토이의 철학만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어떤 형태의 혁명적 분위기와 무력에도 반대했다. 볼셰비키 권력은 무력에 근거한 것으로 톨스토이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제정 러시아 정부도 볼셰비키 혁명 정부도 톨스토이의 사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톨스토이 고손자로서 가지는 작가에 대한 느낌과 톨스토이의 유산을 관리하는 박물관장으로서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가족들은 톨스토이를 이상화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톨스토이의 후손이라는 점을 잊을 수는 없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우리 가게의 최고봉인 고조부를 대했다. 어릴 때 학교에서 톨스토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후손인 내게 관심을 보일 때는 부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의 작품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빨리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작품들을 좋아하게 됐다. 박물관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도 이 같은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단지 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자로서 위대한 작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박물관에는 톨스토이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보관돼 있나.

▲문학 작품들을 포함해 모두 약 4만 점 정도가 전시돼 있다. 여기엔 톨스토이의 개인적 유품 6천 점도 포함된다. 도스토예프스키, 알렉산드르 푸슈킨, 안톤 체홉 등을 비롯한 어떤 러시아 작가의 박물관도 톨스토이 박물관처럼 많은 진품 유물들을 갖고 있진 못하다. 톨스토이는 운이 좋았다. 톨스토이 박물관이 문을 연 것은 그가 서거한 이듬해인 1911년부터 그의 부인인 소피야가 곧바로 작가의 서재와 침실 등 2개의 방을 일반 방문객들에게 개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21년부터 국립 박물관이 됐다.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수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최근 방문객이 10배 이상 늘었다. 1993년에는 한 해에 3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입장 인원에 제한을 두는 데도 불구하고 한해 30만 명 정도가 찾는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로 받고 있다. 더 이상은 받기가 힘들다. 그 사이 외국인 방문객 수도 10배 이상 늘었다. 1993년 전체 방문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이하였는데 지금은 13%가 외국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박물관이 한국의 대기업 삼성과 주러 한국 대사관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방문객 수도 몇 배가 늘었다.

--톨스토이 작품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자연과 주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는 초기 소설 '카자크인'을 좋아한다. 1890년대 작품인 불평등한 인간관계에서의 희생을 그린 '일꾼과 주인'도 좋아한다.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등의 걸작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안나 카레니나는 10번 이상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느낀다. 세계 문학의 걸작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작가의 초년 시절 일기와 말년의 교훈서 등도 즐겨 읽는다."

## 6. 참고문헌

- 연합뉴스. <인터뷰> 톨스토이 고손자 블라디미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778488> (검색일: 2018.01.02.)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Тулы. <https://www.tula.ru/> (검색일: 2018.01.02.)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карта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с автомагистралями. <http://www.raster-map.com/map-of-russia-416/> (검색일: 2018.01.02.)
- АО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им. академика А. Г. Шипунова.  
<http://kbptula.ru/ru/> (검색일: 2018.01.04.)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мориальный и природный заповедник «Музей-усадьба Л.Н. Толстого «Ясная Поляна»». <http://urmuseum.ru/ru/novosti.html> (검색일: 2018.01.05.)
- Климатическая карта. <https://infourok.ru/prezentaciya-po-geografii-tematicheskie-karti-tulskoj-oblasti-267610.html> (검색일: 2018.01.03.)
- Порт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https://tularegion.ru/tula/gerbflag/> (검색일: 2018.01.03.)
- Среднемесячные клима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для г. Тулы. [http://meteoinfo.ru/?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737](http://meteoinfo.ru/?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737) (검색일: 2018.01.03.)
- Тульская пресса. 'Система сбора стоков «Проктер энд Гэмбл-Новомосковск» нуждается в модернизации'. <https://www.tulapressa.ru/2015/05/sistema-sbora-stokov-prokter-end-gembl-novomoskovsk-nuzhdaetsya-v-modernizacii/> (검색일: 2018.01.04.)
- Тульские известия. [http://ti71.ru/news/society/vorobev\\_tulyaki\\_zadolzhali\\_za\\_gaz\\_517\\_millionov\\_rublej/](http://ti71.ru/news/society/vorobev_tulyaki_zadolzhali_za_gaz_517_millionov_rublej/) (검색일: 2018.01.04.)
- 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Л. Н. Толстого.  
<http://www.tsput.ru/> (검색일: 2018.01.05.)
- 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http://tsu.tula.ru/> (검색일: 2018.01.05.)
- Туль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www.tulaoblduma.ru/o\\_dume/polnomochiya/](http://www.tulaoblduma.ru/o_dume/polnomochiya/) (검색일: 2018.01.02.)
- Физическая-карта-Тульской-обл. <http://fotovelo.ru/karty-geograficheskie/fizicheskaya-karta-tulskoj-obl/> (검색일: 2018.01.03.)

---

1) 출처: <https://www.tula.ru/press-center/photogallery/2018/#gallery> (검색일: 2018.01.03.)

- 2) 출처: <https://yandex.ru/maps/?ll=38.345673%2C54.220715&z=8> (검색일: 2018.01.03.)
- 3) 출처: [http://info.senatorvtule.ru/info/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9&Itemid=48](http://info.senatorvtule.ru/info/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9&Itemid=48) (검색일: 2018.01.03.)
- 4)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D0%A2%D1%83%D0%BB%D1%8C%D1%81%D0%BA%D0%B0%D1%8F\\_%D0%BE%D0%B1%D0%BB%D0%B0%D1%81%D1%82%D1%8C](https://ru.wikipedia.org/wiki/%D0%A2%D1%83%D0%BB%D1%8C%D1%81%D0%BA%D0%B0%D1%8F_%D0%BE%D0%B1%D0%BB%D0%B0%D1%81%D1%82%D1%8C) (검색일: 2018.01.03.)
- 5) 출처: [http://www.tulaoblduma.ru/o\\_dume/polnomochiya/](http://www.tulaoblduma.ru/o_dume/polnomochiya/) (검색일: 2018.01.03.)
- 6) 출처: <http://fotovelo.ru/karty-geograficheskie/fizicheskaya-karta-tulskoj-obl/> (검색일: 2018.01.03.)
- 7) 출처: <https://infourok.ru/prezentaciya-po-geografii-tematicheskie-karti-tulskoy-oblasti-267610.html> (검색일: 2018.01.03.)
- 8) 출처: [http://meteoinfo.ru/?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737](http://meteoinfo.ru/?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737) (검색일: 2018.01.03.)
- 9) 출처: <https://tularegion.ru/tula/gerbflag/> (검색일: 2018.01.03.)
- 10) 같은 곳.
- 11) 출처: <https://tularegion.ru/governance/structure/> (검색일: 2018.01.04.)
- 12)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D0%A1%D0%BF%D0%B8%D1%81%D0%BE%D0%BA\\_%D0%B3%D0%BB%D0%B0%D0%B2\\_%D0%A2%D1%83%D0%BB%D1%8C%D1%81%D0%BA%D0%BE%D0%B3%D0%BE\\_%D1%80%D0%B5%D0%B3%D0%B8%D0%BE%D0%BD%D0%B0](https://ru.wikipedia.org/wiki/%D0%A1%D0%BF%D0%B8%D1%81%D0%BE%D0%BA_%D0%B3%D0%BB%D0%B0%D0%B2_%D0%A2%D1%83%D0%BB%D1%8C%D1%81%D0%BA%D0%BE%D0%B3%D0%BE_%D1%80%D0%B5%D0%B3%D0%B8%D0%BE%D0%BD%D0%B0) (검색일: 2018.01.04.)
- 13)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7th\\_Tula\\_Oblast\\_Duma.svg](https://ru.wikipedia.org/wiki/7th_Tula_Oblast_Duma.svg) (검색일: 2022.07.03)
- 14) 출처: [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31793509&vrn=100100031793505&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vibid=100100031793509&type=227](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31793509&vrn=100100031793505&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vibid=100100031793509&type=227) (검색일: 2017.02.27)
- 15) 출처: [https://tularegion.ru/presscenter/photo/?ELEMENT\\_ID=79242#lg=1&slide=8](https://tularegion.ru/presscenter/photo/?ELEMENT_ID=79242#lg=1&slide=8) (검색일: 2018.01.04.)
- 16) 출처: <https://www.tulapressa.ru/2015/05/sistema-sbora-stokov-prokter-end-gembl-novomoskovsk-nuzhdaetsya-v-modernizacii/> (검색일: 2018.01.04.)
- 17) 출처: [https://yandex.ru/maps/15/tula/?text=%D0%A2%D1%83%D0%BB%D0%B0%D1%87%D0%B5%D1%80%D0%BC%D0%B5%D1%82&source=wizbiz\\_new\\_map\\_single&z=14&ll=37.721351%2C54.157472&sctx=ZAAAAAgBEAAaKAoSQCWm07oNwV9AEZlk5CzswUJAEhIjt0YE4%2BDS0T8RRdjw9EpZzj8iBAABAgMoATABONiAo%2FmFquWWc0CLU0gBVQAAGD9YAGIScmVsZXZfZHJlZ19ib29zdD0xagjyDXAB&oid=1624207690&ol=biz&photos%5Bbusiness%5D=1624207690&photos%5Bid%5D=urn%3Ayandex%3Asprav%3Aphoto%3A2009644&mode=search&sl=37.721351%2C54.157472](https://yandex.ru/maps/15/tula/?text=%D0%A2%D1%83%D0%BB%D0%B0%D1%87%D0%B5%D1%80%D0%BC%D0%B5%D1%82&source=wizbiz_new_map_single&z=14&ll=37.721351%2C54.157472&sctx=ZAAAAAgBEAAaKAoSQCWm07oNwV9AEZlk5CzswUJAEhIjt0YE4%2BDS0T8RRdjw9EpZzj8iBAABAgMoATABONiAo%2FmFquWWc0CLU0gBVQAAGD9YAGIScmVsZXZfZHJlZ19ib29zdD0xagjyDXAB&oid=1624207690&ol=biz&photos%5Bbusiness%5D=1624207690&photos%5Bid%5D=urn%3Ayandex%3Asprav%3Aphoto%3A2009644&mode=search&sl=37.721351%2C54.157472) (검색일: 2018.01.04.)
- 18) 출처: <https://armtorg.ru/photo/7/> (검색일: 2018.01.04.)
- 19) 출처: <http://kbptula.ru/ru/fotogalereya/category/127-army2016> (검색일: 2018.01.04.)
- 20) 출처: <http://kbptula.ru/ru/fotogalereya/category/110-priezd-putina> (검색일: 2018.01.04.)
- 21) 출처: [http://ti71.ru/news/society/vorobev\\_tulyaki\\_zadolzhali\\_zagaz\\_517\\_millionov\\_rublej/](http://ti71.ru/news/society/vorobev_tulyaki_zadolzhali_zagaz_517_millionov_rublej/) (검색일: 2018.01.04.)
- 22) 출처: [http://tulastat.gks.ru/wps/wcm/connect/rosstat\\_ts/tulastat/resources/e761598043834452abe5fbdd898fc419/%D0%A7%D0%B8%D1%81%D0%BB%D0%B5%D0%BD%D0%BD%D0%BE%D1%81%D1%82%D1%8C+%D0%B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1%8F.pdf](http://tulastat.gks.ru/wps/wcm/connect/rosstat_ts/tulastat/resources/e761598043834452abe5fbdd898fc419/%D0%A7%D0%B8%D1%81%D0%BB%D0%B5%D0%BD%D0%BD%D0%BE%D1%81%D1%82%D1%8C+%D0%B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1%8F.pdf) (검색일: 2018.01.04.)
- 23)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D0%A2%D1%83%D0%BB%D1%8C%D1%81%D0%BA%D0%B0%D1%8F\\_%D0%BE%D0%B1%D0%BB%D0%B0%D1%81%D1%82%D1%8C](https://ru.wikipedia.org/wiki/%D0%A2%D1%83%D0%BB%D1%8C%D1%81%D0%BA%D0%B0%D1%8F_%D0%BE%D0%B1%D0%BB%D0%B0%D1%81%D1%82%D1%8C) (검색일: 2018.01.04.)
- 24) 출처: <http://huliya.pw/%D0%BB%D0%B5%D1%81%D0%B0%20%D1%82%D1%83%D0%BB%D1%8C%D1%81%D0%BA%D0%BE%D0%B9%20%D0%BE%D0%B1%D0%BB%D0%B0%D1%81%D1%82%D0%B8%20%D0%BA%D0%B0%D1%80%D1%82%D0%B0> (검색일: 2018.01.05.)
- 25) 출처: <http://tsu.tula.ru/> (검색일: 2018.01.05.)
- 26) 출처: <http://www.tspu.ru/> (검색일: 2018.01.05.)
- 27) 출처: <https://www.smileplanet.ru/russia/tula/tulskiy-kreml/> (검색일: 2018.01.05.)
- 28) 출처: [https://www.kulpole.ru/gallery/index.php?SECTION\\_ID=326](https://www.kulpole.ru/gallery/index.php?SECTION_ID=326) (검색일: 2018.01.05.)
- 29) 출처: <http://ypmuseum.ru/ru.html?start=20> (검색일: 2018.01.05.)
- 30)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04917> (검색일: 2018.01.02.)
- 31)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778488> (검색일: 2018.01.02.)
- 32) 같은 곳.